



제 400 호 2015년 7월 22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브라보 안산

Ansan city Newspaper
Bravo Ansan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 blog.naver.com/cityansan](http://blog.naver.com/cityansan) [t twitter.com/ansancityhall](https://twitter.com/ansancityhall) [f facebook.com/ansancity3](https://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02면	특집 / 와~ 여름이다!	04면	생태·관광	07면	문화·예술	12면	종합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요! 안산호수공원 야외 수영장 개장		보물섬, 대부도로 떠나는 예술여행		2015 단원미술관 기획전 만화경 풍경		전국 축구팬들, 안산 와~스타디움 주목! ‘2015 K리그 올스타전’	

음악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
LIVE TO THE MAX

2015
ANSAN VALLEY ROCK FESTIVAL

07·24
FRI

NOEL GALLAGHER'S
HIGH FLYING BIRDS

deadmau5

광기하와 얼굴들
KHIA & IFACES

GUCKKASTEN

THE KOXX

[Alexandros] • 엑소더스 • BENJAMIN BOOKER •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 • 홀로그램필름

이지형 • 라이프 앤 타임 • 라이너스의 담요 • MAGIC POWER • RIDE • 서울 리듬 슈퍼클럽

07·25
SAT

The chemical brothers

IDIOTAPE

DYNAMIC DUO

OKGO

GLEN CHECK!

아플로18 • 빌리어코스티 • DRENGE • 갤럭시익스프레스 • 장범준 • 정준영밴드

노라조 Live Set • 페퍼톤스 • 로큰롤라디오

07·26
SUN

FOO FIGHTERS

RUDIMENTAL LIVE

motorhead

twentyonepilots

DAYBREAK

비트버거 • 디어클라우드 • 고고스타 • 혁오 • ONE OK ROCK • 피터팬 컴플렉스 • 술탄 오브 더 디스코

and many more...

2015·07·24 ~ 26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주최·주관 협찬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VALLEY ROCK FESTIVAL

무더위? 그게 뭐죠?

우리집 앞 야외 수영장에서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요!



7월 11일, 안산호수공원 야외 수영장 개장 8월 23일까지 휴무 없이 운영 계획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안산시내 물놀이시설 부족 아쉬움 해결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고 마른장마가 계속된 올 여름 중 가장 더웠던 7월 11일 호수공원 야외 수영장이 개장했다. 당초 지난 6월말에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로 늦춰져 개장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

10시 30분에 진행된 개장식에는 야외수영장 개장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그러나 무더위 속에서 수영장 입장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약식으로 행사를 진행해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수영장 입장! 개장기념으로 무료입장을 한 가족단위 시민들은 양손에 돗자리와 아이스박스를 들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예 수영복을 입고 대기하던 어린아이들은 이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있었지만 무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밝은 표정이었다. 3만4,000㎡의 넓은 수영장에 들어선 시민들은 가족의 구성에 따라 성인풀과 유아풀 주변 그늘막과 파라솔 밑에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은 튜브와 물총, 스노클링을 들고 시원한 물에서 여름을 즐기고, 부모들은 아이의 튜브를 끌거나, 사진을 찍어주며 시간을 보냈다. 손자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젊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이가 조준하는 물총의 거센 물세례를 웃으며 받아주는 아빠, 그늘막에 앉아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는 엄마의 모습이 평화롭고 행복하기 그지없다.

부곡동에서 지인들과 함께 수영장을 찾은 이지영 씨(40세)는 “주변에 가까운 수영장이 없어 실내 물놀이장을 이용했었는데 이렇게 넓은 야외 수영장이 생겨서 참 좋다.”고 말했다.

안산 야외수영장은 선텐장, 성인풀, 바닥분수, 샤워장, 화장실, 그늘막, 탈의실, 유수풀, 유아풀, 매점을 갖추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월 23일까지 휴무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성인 7,000원, 청소년·군인 4,900원, 어린이·노인

4,200원이고, 3세 이하 유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명 이상 단체인 경우 1인 3,500원에 이용가능하다.

야외 수영장 내 취사는 안 되므로 도시락과 간식 등 먹을거리를 넉넉히 준비해 가면 물에서 지치도록 신나게 노는 아이들과 온 가족이 저렴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2인용 그늘막을 가져가 원하는 장

소에 설치해 사용할 수도 있다.

여름이면 늘 아쉬웠던 야외 수영장이 도심 한복판에 생겨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만큼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문의 : 안산호수공원 야외수영장 ☎ 031-8085-7480~2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수영장을 이용하실 땐 꼭 지켜주세요!

- * 물에 들어가기 전, 몸을 깨끗이 샤워하고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세요.
- * 눈병, 피부병,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어요.
- * 수영조 안에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말고 물은 항상 깨끗이 사용해야 해요.
- * 음주 후에는 절대로 수영조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 * 귀중품은 분실되지 않도록 개인이 철저히 관리하셔야 해요.
- * 수영조에 들어갈 때는 꼭 수영모를 착용하세요.
- * 어린이와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 수영조에 들어가야 해요.
- * 수영 중 신체에 이상 현상이 생기면 즉시 수영을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해요.
- * 고무튜브 또는 수영장비(오리발, 스노클링 등)를 사용할 수 없어요.
- * 체력관리를 위해 수영 30분 뒤엔 적당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요.
- *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때는 퇴장을 당할 수 있어요.
- *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때는 의료인에게 간단한 치료를 받고, 중상일 경우에는 퇴장하시어 의료인의 지시를 따라야 해요.



무료입장으로 더욱 즐거운 와동 물놀이장



오는 8월 30일까지 운영해 텐트, 그늘막 설치 불가

지난해 개장한 와동 물놀이장이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문을 열었다. 개장 첫날인 지난 7월 11일 많은 사람들이 더위 속에 가족들과 물놀이를 즐겼다.

와동 물놀이장은 어린이풀, 물놀이풀, 유아풀, 야외데크 등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필수안전요원 1인을 포함한 관리인 3~4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일 1회 이상 수조 내 물을 교체하고 주 1회 수질 검사도 시행한다.

그늘막 15조, 탈의실(남녀) 각 1개소, 샤워실 1개소, 간사위시설 2개소 등의 부대시설이 있다. 텐트 설치는 안 되며 돛자리를 준

비하면 된다. 함께 온 할아버지 할머니는 소나무 숲에 돛자리를 깔고 책을 읽거나 물놀이 하는 손주를 보는 다정한 모습도 보인다. 온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정왕동에서 온 정주영 씨(남, 39세)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듣고 오게 됐다. 사실 작년에도 여기 물놀이장에 왔었다.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왔는데 즐겁게 시간 보내고 가려고 한다.”며 돛자리를 폈다.

태권도 도장에서 같이 온 초등학생들이 왓자지껄 물놀이에 여념이 없다. 강재성 학생(화정초 4)은 “수영을 해서 즐거워요. 물에서 노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데 친구들과 함께 와서 좋아요.”라고 말했고, 송예지 학생(화정초 2)은 “배영을 좋아해요. 여름에 물놀이 할 수 있어 좋아요. 친구들과 또 올겁니다.”라며 웃음꽃을 피웠다.

시설관리 담당자는 “무엇보다 안전에 신경을 썼다. 자녀들끼리 보내도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와동 체육공원 옆에 위치한 물놀이장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소나무 그늘도 있어 더욱 좋다.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 휴장이다. 오는 8월 3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한다. 지난해는 하루 약 12,000명씩 다녀갔으며 60일 동안 720,000명이 와동 물놀이장을 이용했다.

- 개장일시 : 8월 30일까지(오전 10시 ~ 오후 5시)
- 위치 : 와동 813-1(와동공원 내)
- 입장료 : 무료(월요일, 우천 시 휴장)
- 문의 : 와동 물놀이장 ☎ 031-481-2412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안산썰매장, 물썰매장으로 변신

숲속에서 물놀이, 물썰매 즐겨요 입소문 퍼져 유명시설로 자리잡아

안산썰매장이 물썰매장으로 변신했다. 지난 7월 11일 임시 개장한 물썰매장(단원구 동산로 179)은 휘날리는 만국기 아래 어린이들의 물놀이 축제장이 되었다. 물썰매는 물론 종합물놀이장과 조립식 수영장, 에어슬라이드 등 물놀이장이 들어섰다. 휴게실과 매점, 식당, 야외 샤워장, 남·여 탈의실, 사물함 등의 시설을 갖췄다.

종합 물놀이장은 연령을 고려해 수심이 다른 2개의 풀장으로 저녁에 물을 빼고 청소한 후 다시 물을 받는다. 조립식 수영장은 24시간 여과시설을 통해 살균된 물을

사용한다. 점심시간인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시설 사용이 중단되며, 물썰매장을 제외한 물놀이장은 50분 이용, 10분 휴식으로 운영된다. 오랜시간 물놀이를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저체온증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물썰매장은 굵은 호스를 고정시켜 라인을 구분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을 기했다. 물썰매장 물은 수도물을 받아 고압으로 4분마다 2분씩 분사된다.

시흥에서 온 최주영 씨(여, 39세)는 “매년 여기 물놀이장을 찾는데 개장 첫날이라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일찍 왔어요. 지인 가족과 7살, 6살 두 딸을 데리고 함께 왔는데, 위험하지도 않고 비용도 저렴해 참 좋아요.”라며 “여기 눈썰매장도 매년 이용하는데 평

강히 유명해요. 입소문이 자자하답니다.”라고 덧붙혔다.

안산물썰매장은 7월 11일, 12일 임시 개장을 한 뒤 7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텐트나 그늘막 설치가 가능하며 취사는 불가하다.

- 운영시간 : 8월 23일까지(오전 10시 ~ 오후 5시 30분)
- 요금 : 성인 7,000원 / 청소년 5,000원 / 어린이 4,000원
- 위치 : 지하철 초지역 뒤
- 문의 : 안산물썰매장 ☎ 031-8085-7444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보물섬, 대부도로 떠나는 예술여행



단원 김홍도 영인본과 거리극 공연, 보물섬으로 가다

오는 7월 24일부터 3일간 대부도에서는 2015안산M밸리룩페스티벌 행사가 열린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대부도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기간은 안산시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시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안산시는 이 기간 동안 안산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안산시가 단원 김홍도의 도시임을 홍보하고자 단원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단원 김홍도 영인본 작품 90여 점을 대부도 정문규미술관에서 7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특별전시한다.

또한, 지난 5월 3일부터 5일까지 안산문화광장에서 전세계 10개국 61개 작품이 참여하여 성공리에 개최된 '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 공연작품 중 우수작품을 선별하여 대부도 지역 내 박물관과 바다향기 테마파크, 시화호조력발전소 내 시화나래휴게

소 등에서 거리극 공연을 2015안산M밸리룩페스티벌 기간 중에 펼칠 예정이다. 대부도 보물섬으로 떠나는 예술여행은

대부남동에 소재한 종이미술관에서도 진행되며 이곳에서는 공예 작품전시와 한지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2015종이문화축제'가 오는 7월 24일부터 1개월간 개최된다.

해양관광 생태도시를 꿈꾸는 안산시가 대부도 지역에서 펼치는 '보물섬으로 떠나

는 예술여행'에 외부 관광객뿐만 아니라 안산시민들도 함께 참여하여 안산시의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문의 : 문화예술과 ☎ 031-481-2068
안산문화재단 ☎ 031-481-0538

자료제공 : 문화예술과

※ 장소별 프로그램

장소	장르	7.24.(금)	7.25.(토)	7. 26.(일)
바다향기 테마파크	바람+몸짓 (무용공연)		16:00 신호유희 17:00 꽃피는 사월 18:00 신호유희	16:00 유희노리 17:00 더 체어 18:00 유희노리 19:00 황금영혼
유리섬 박물관	바람+소리 (음악공연)		17:30 Dusky80 18:00 집으로	
종이미술관	바람+놀이 (인형극)	15:00 제랄다와 거인 16:00 재주있는 처녀	16:00 재주있는 처녀 17:00 재주있는 처녀	
시화나래휴게소 (시화조력발전소내)	바람+연희 (광대공연)		15:00 나홀로 서커스 16:00 랄랄라쇼 17:00 코메디 서커스쇼 18:00 나홀로 서커스 19:00 랄랄라쇼	14:00 팀퍼니스트 15:00 나홀로 서커스 16:00 랄랄라쇼 17:00 코메디 서커스쇼

살아있는 곤충의 세계, 함께 가볼까요?



안산곤충생태체험장 실내 모습



안산곤충생태체험장에 전시된 도마뱀



안산곤충생태체험장 입구에 선 이건희 대표

안산곤충생태체험장 개장

안산IC초입에 위치한 안산곤충생태체험장이 지난 6월 30일 개장했다. 안산곤충생태체험장은 1,650㎡ 규모로 안산시가 올해 3월부터 곤충생태학습장조성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곤충과 자연생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조성했다.

입구에 들어서면 15종 30여 그루의 과수 나무와 부레옥잠과 개구리밥 등 수생식물과 수생곤충이 자라고 있는 작은 연못이 있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끼와 병아리 사육장과 굼벵이 사육장이 있어 아이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것으로 보인다.

생태관에 들어서면 고슴도치와 기니피그 등이 아이들을 반기고, 아프리카 북부 사막지역에 서식하는 샌드 피시 도마뱀도 만

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장수풍뎅이, 넓적 사슴벌레, 달팽이,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굼벵이), 땅강아지, 지렁이 등을 관찰하거나 만져볼 수 있다. 이외에도 무당벌레와 나비 등 다양한 곤충표본도 전시되어 있다. 이건희 대표는 “안산시민들이 안산 지역 안에서 다양한 곤충과 생태 환경을 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곳을 다녀간 어린이들이 자연의 소중함과 정서적 안정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태관 안쪽에는 장수풍뎅이의 알부터 1령, 2령, 3령까지 생육을 돕는 곤충산란장과 참나무로 된 톱밥을 발효해서 장수풍뎅이의 먹이로 사용하는 사료실이 있다. 이곳에서 길러진 장수풍뎅이는 아이들의 체험학습 시 이용되며 판매도 한다. 안쪽에 마련된 교육장에서는 곤충의 세계를 보여주는 영상을 관람하고, 다양한 키트를 이용해 만

들기를 할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가된 갈색거저리와 흰점박이꽃무지가 있어 아이들과 미래 인류의 식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신청 프로그램에 따라 식용 곤충을 시식해 볼 수 있다. 이건희 대표는 “미래과학자들이 향후 10대 신기술에

곤충기술을 포함할 정도로 곤충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크다. 곤충을 단순히 애완동물로 여겼던 것에 그치지 않고 식용, 약용, 사료용, 병해충을 퇴치하는 천적곤충, 매개곤충, 환경정화 곤충 등 그 범위가 실로 무한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갈색거저리 애벌레, 흰점박이꽃무지(굼벵이)외에도 벼메뚜기, 번데기, 백감장(흰가루병에 걸려 죽은 누에), 장수풍뎅이 애벌레 등 6종이 식용으로 허가됐고, 귀뚜라미도 올해 안에 허가될 예정이다. 사전 예약 시 생태·곤충 전문가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학을 맞이하는 아이들과 함께 무한한 곤충의 세계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 문의 : 안산곤충생태체험장 ☎ 031-435-4477
김은미 명예기자(ami34@hanmail.net)

※ 안산곤충생태체험장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및 비고
곤충생태체험	• 전시관관람, 살아있는 곤충관찰 • 사육체험하기, 곤충분양하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생 체험비 3,000 ~ 8,000원
자연생태 및 기타 체험	• 계절에 맞는 채소심기, 수확체험 • 재활용 채소텃밭 만들기 • 새싹채소 재배포트 만들기 • 지렁이 사육상자 만들기 • EM 미생물 만들기 • 허브음료 체험	
찾아가는 곤충교실	• 곤충교육 프로그램, 표본만들기 등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경기테크노파크에 설치 운영

안산시 산업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정책과 실행의 일원화 실현



7월 10일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홀에서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다목적홀 로비에 마련된 행사장에는 센터 개소식 기념 기획전시를 마련, 안산 산업사 연표, 경제환경, SWOT 분석 등 현황과 사진

을 전시해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안산시관계자와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도·시의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안산시 산업경제 정책연구 기능 전담기구인 산업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센터 출범을 반겼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안산시의 산업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일관되고 실행 가능한 정책 및 사업 기획으로 시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해 설립됐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안산시의 싱크 탱크로서 산업경제 성장을 위한 실질적 전략수립, 정책지원, 전략사업 발굴 등 안산시의 산업경제 경쟁력 강화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산업경제 분야 최대 출연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에 센터를 설립해 기존 조직 내 인프라를 활용, 기존 보유 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는 ‘정책과 실행의 일원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테크노파크 윤성균 원장은 “센터장

과 석박사급 우수인력 2개 팀 10명이 근무하게 되는 작은 조직으로 시작하지만, 연구력을 집중해 안산시 산업경제 정책추진 컨트롤타워 구축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장기적으로 경기도 전역의 산업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 문을 여는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산업경제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인근 한양대학교 등 4개 대학을 포함한 산학연과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구슬을 잘 꿰어 산업경제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10년~15년 내에 안산 사이언스밸리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 문의 : 안산시 산업정책과 ☎ 031-481-2853

안산시 ‘행복家꿈’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해 시민 삶의 질 높여

기업·단체·시민 모두가 잘 사는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구현

월피동의 한 다가구 주택 1층에서 어린 손자들과 어렵게 생활하는 강씨 할머니. 할머니는 지은 지 20년이 넘는 낡은 주택에서 살고 있다. 배수관에서 베어 나온 습기로 방 한쪽 벽면에 곰팡이가 퍼, 수리를 해야 하지만 가정 형편상 도배를 새로 하는 정도의 집수리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안산시는 월피동 주민센터를 통해 강 할머니의 사연을 접수하고 지난 7월 6일, 강 할머니 집을 수리해 드렸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행복家꿈’ 사업의 후원사 (주)보광종합건설 직원들과 함께였다. 할머니는 “새 집을 만들어 주셨다. 감사하다. 곰팡이가 손주들 건강을 해칠까봐 신경이 쓰였지만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복家꿈’ 사업은 지역사회 건설업체와 단체 등의 재능기부를 받아 저소득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에는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마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공헌의 장을 조성하는 의미가 있다. 안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50가구를 추천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약 50만 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조손 가정, 한 부모가

정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 한 해 사업성과에 따라 국·도비 확보도 추진하게 된다. 행복家꿈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화장실 수리 등 생활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후원 건설업체·단체와 협의해 지원대상 가구를 연결해 집수리에 들어가게 된다. 대상가구는 각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방문 보건 팀의 추천을 받아 시 건축과의 현장조사 후 선정한다. 시는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현지 조사를 통해 대상가구를 찾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후원 건설업체와 단체 등은 재능기부 형태로 집수리를 하게 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감사패 수여와 함께 자원봉사 실적 인정된다. 주택건설협회와 함께 22년째 국가유공자들의 집수리를 추진해온 후원사(주)보광종합건설 담당자는 “안산시 행복家꿈 사업을 통해 수혜 가정들이 생활의 활력을 찾길 바라며 기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올 3월에 2015년도 사업 추진 대상가구를 30가구로 정했지만 목표달성에 의의를 두기보다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행복家꿈 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행복家꿈 사업에 재능기부 또는 기탁금 등 후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 건축과 ☎ 031-481-2915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anver.com>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추천하는 제철과일



복숭아



복숭아의 효능

- **피로회복 효과** : 비타민 A, 비타민 C, 펙틴, 칼륨이 풍부해 피로회복 효과가 있습니다.
- **변비치료효과** : 식물성 섬유인 펙틴이 풍부해 변비에 효과적입니다.
- **니코틴 해독 효과** : 복숭아에는 해독효과가 있어 니코틴 해독에 효과적입니다.

좋은 복숭아 고르는 법

-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고르고 흠집이 없는 것이 좋은 복숭아입니다.
- 좌우 대칭으로 잘 생긴 복숭아가 좋은 복숭아입니다.
- 뒤쪽에 파란기가 없고 향이 진한 복숭아가 잘 익고 좋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와 궁합이 좋지않은 음식

- 복숭아와 장어를 같이 드시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복숭아와 바닷게를 같이 드시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 복숭아와 요구르트를 같이 먹으면 변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 펙틴이 풍부한 복숭아와 사과를 같이 먹으면 변비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복숭아의 보관법

- 복숭아는 차가우면 단맛이 떨어집니다. 실온에 보관하셨다가 드시기 1시간 전쯤에 냉장기에 넣으면 달콤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8~13℃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를 조금만 드셔야 하는 분들

- **몸에 열이 많은 분들** : 복숭아는 따뜻한 성질의 과일이므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많이 드시면 부스럼, 종기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알레르기성 체질인 분들** : 복숭아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쉬운 과일이므로 알레르기성 체질인 분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양음식 나누며 시문(詩文) 짓고 거문고 타며 복날 더위 이긴 선조들 강세황 '현정승집도(玄亭勝集圖)'속 옛 모습 그대로 청문당서 재현돼

보양음식과 술을 나누고, 거문고 가락에 맞춰 시(詩)를 읊으며 삼복더위를 이겨냈던 선조들의 풍류가 옛 모습 그대로 재현됐다. 초복을 이틀 앞둔 지난 7월 11일 부곡동 청문당(淸聞堂; 경기도문화재자료 94호)에서는 극단 '이유' 단원들이 표암 강세황의 그림 '현정승집도' 속 11명의 인물들—유경종, 강세황, 유경농, 유경용, 유성, 유겸, 강인, 강흔, 박성망, 박도맹과 가동(家僮) 귀남으로 변해, 268년 전인 1747년 6월 초복을 맞아 여름을 나던 선비들의 모습을 공연으로 보여줬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2015경기민속문화의 해' 연계사업으로 기획해 안산학연구원을

이 주관한 이날 공연은 단원 김홍도의 스승이었던 표암 강세황의 그림 '현정승집도'와 그림에 적힌 유경종의 발문 "복날 개를 잡아 여럿이 모여 먹는 것이 풍속이다. 6월 1일은 초복인데 다음 날 현곡(안산) 청문당에 열한 명이 모였다. 주연이 무르익어 광지(강세황)에게 그림을 그려 먼 훗날 볼거리로 삼자고 했다."에 기초했다.

시, 서, 화에 능해 삼절로 잘 알려진, 18세기 예원의 총수 표암 강세황은 처남 유경종의 초대로 두 아들 '인, 혼'과 함께 처가댁 청문당에서 유씨 형제와 그들의 아들들, 지인들과 함께 복날을 나던 그날의 모임을 덕조

유경종의 청에 의해 그림으로 남긴다. 청문당 주인 유경종은 "장맛비가 복날 더위를 무찌르니 매미 울음소리 차츰 들려오네. 좋은 날을 잡아 멋진 모임 열었으니, 술잔 돌리며 현수하지 않을 수 없지. 푸른 나무, 긴 냇물 위를 뒤덮어 연못가 누각에 자리 마련하였네. 오이 띄워 시원한 즙을 마시고, 살진 고기 썰어서 씹어 먹누나. 옥 바둑판 사이로 거문고 가락 흐르니, 기이한 흥취가 더욱 가볍지 않네. 저 서원의 잔치를 생각해 보니 이 모임 옛날에 부끄럽지 않구나."라고 좋은 날 좋은 모임을 위한 시 한 수를 직접 지어 표암의 거문고 음향에 맞춰 낭송했다.

이 날 공연에는 표암 강세황 어른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변영섭 전 문화재청장의 수준 높은 해설이 곁들여져 안산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시민들은 또 안산문화원이 마련한 문인화 그리기, 부채 만들기와 행복예절관이 준비한 복날 음식을 나누며, 청문당의 가치와 이를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좌담회에도 귀를 기울였다.

청문당은 진주 유씨 16세손 유시희 선생이 임진왜란 이후 건립한 유씨 문중의 종가집이다. 조선시대 4대 서고 중 하나로 서책만 권이 있었던 청문당 만권루는 조선 후기 기호남인들의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이자 실학의 산실 역할을 했었다. 지금은 청문당 바로 뒤쪽으로 수인산업도로가 가로 지르고, 크고 작은 공장들이 들어차서 5천 평에 이르던 대지와 정원 연못 등 옛 정취는 거의 사라졌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에게 "내 공장 앞에 차 빼시오."라고 외치는 공장주의 원 목소리만이 남았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거리로 나온 예술

안산시, 지역경제와 문화향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 열어



통기타 밴드 '포크 패밀리'의 공연을 즐기는 시민들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 중 마술 공연에 참여한 어린이

안산시는 오는 10월말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생활향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연다.

지난 7월 8일 고잔 신도시 참치거리 앞

광장에서는 통기타 밴드 '포크 패밀리'의 정겨운 연주와 노래가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들었다.

첫 곡으로 진주하와 종진도가 1976년 영화 '사랑의 스잔나'에서 함께 불러 인기를 끌

었던 'One Summer Night'이 한여름 오후 광장을 가득 메웠다.

이어 '해변으로 가요', '연안부두', '사랑밖에 난 몰라', '향수', '하하하 쏘'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낯익은 곡들이 이어져 퇴근하

는 시민들과, 어디론가 바쁘게 가던 시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흥겨운 음악에 고개를 끄덕이며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며 흥겨운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30분간의 흥겨운 통기타 밴드의 공연이 끝나고 이어 마술 공연이 이어졌다. 카드가 순간순간에 작아지기를 반복하거나, 버리고 버려도 손에서 다시 생기는 붉은 공, 얇은 보자기가 지팡이로 바뀌는 마술은 언제 보아도 신기하다. 마술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마술사의 손동작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아이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술사와 함께 탁자를 들어 올리는 마지막 마술을 선보이며 무대는 막을 내렸다.

안산시는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공원과 지하철 역 주변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나마 쉼을 선물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7월 15일은 중앙역, 18일(토)은 성포예술광장에서 공연을 진행했고, 7월 22일은 원고잔공원, 29일은 안산 문화광장에서 거리로 나온 예술을 만날 수 있다. 거리에서 불현듯 만나는 문화공연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잠시 여유를 갖고 누리 보는 것은 어떨까.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2015 단원미술관 기획전

만화경 풍경

단원미술관, 7.30(목)~8.30(일) 까지

단원미술관에서는 2015년 여름기획전 '만화경 풍경'展을 개최한다.

만화경(kaleidoscope, 萬華鏡)이란 거울로 된 통에 형형색색의 유리구슬, 종이조각 등을 넣어 아름다운 무늬를 볼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같은 무늬가 반복되지 않고 새로운 무늬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만화(萬華)를 보여주는 거울이라 하여 만화경이라 한다.

이번 '만화경 풍경'展은 현실세계의 풍경이나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하는 과정 혹은 그 결과물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전시로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와 내용으로 구성된다. 사진, 미디어아트, 설치, 조각 등 다양한 형식과 언어로 표현된 작품을 통해 다매체, 탈장르화되어 가는 현대미술의 경향을 읽어볼 수 있으며, 관람자가 직접 작품 속에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인터랙티브 작품들이 전시된다.

빠키 작가는 그래픽디자인, 설치, 공간, 영상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로 독특한 색감과 복잡하면서도 유쾌한 그래픽 패턴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매체를 통해 풀어낸다.

안종연 작가는 스테인리스 스틸, 유리, 두랄루민, 돌, 에폭시 등의 재료로 '빛'과 '우주의 본질'을 여러가지 테마로 표현해내며,

오유경 작가는 예술과 자연의 관계, 에너지들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이병찬, 이주용, 이준, 이지영, 임지빈, 캐스퍼강, 하석준 등 다양한 소재와 독특한 화법으로 우리사회의 현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만화경 풍경'이라는 전시 주제에서 보이듯 모두에게 주어진 환경, 규칙, 경험, 언어, 이미지라는 조건들 속에서, 그것들을 해체하고 통합하여 삶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반복되지 않는 새로운 무늬를 생산해 내는 만화경의 경험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시기간 중 매주 주말마다 미술관 '프락음악회'와 함께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품과 미술작품을 만들어 보는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시는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관람료는 성인 2,000원, 초·중·고 1,000원, 미취학아동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문의 : 단원미술관 ☎ 031-481-0504



2015 단원미술관 기획전 '만화경 풍경'

전시기간 7. 30(목)~8. 30(일) **오픈** 7. 30(목) 17:00
장 소 단원미술관 **관람시간** 10:00 ~ 20:00 (전시종료 30분전 입장마감)
참여작가 빠키, 안종연, 오유경, 이병찬, 이주용, 이준, 이지영, 임지빈, 캐스퍼강, 하석준
관람료 일반 2,000원 / 초·중·고 1,000원 / 20인 이상 단체 50%할인
 미취학 아동,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동반 1인), 행복플러스카드(가족당 2인) 무료
문의 단원미술관 031-481-0504 www.danwon.org

한여름 밤의 마을영화제를 가다

“평생학습관 뒷마당이 놀이터가 됐어요”



오후 6시가 넘었는데도 30도가 웃도는 찜통더위는 기세등등했다. '왜 이렇게 덥냐'를 입에 달고서도 마을영화제를 준비한 엄마들은 동네 분식점에서 쥘 감자와 옥수수를 평생학습관 뒷마당으로 부치러히 나른다. 한 구석에서는 돛자리를 펴고 부침개 부칠 준비를 하는 엄마들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엄마들은 프라이팬 열기에 연신 부채질을 하며 메뉴선정에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도 푹푹푹 부침개를 만들어냈다. 예전 동네잔치 풍경을 보는 듯, 벌건 얼굴로 전을 부치면서도 아줌마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아이들은 저녁에 맘 놓고 동네 친구들과 뛰어놀고, 마실 나온 동네 어른들은 돛자리를 깔고 이웃들과 오랜만에 수다 삼매경에 빠졌다. 무더운 한여름 밤이 정답게 흘러가고 있었다.

마을에서 동아리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엄마 교사들은 청소년들 봉사자들과 함께 게임을 준비해 놀았다. 지금은 보기 힘든 고무줄놀이, 과자 따먹기, 단체줄넘기 등의 게임이 여기저기서 진행됐다. '꼬마야 꼬마야 노래에 맞춰 동생들이 줄을 넘으며 킁킁대는 소리에 누나와 형들도 힘이 나는지 더 크게 줄을 돌렸다. 처음 해보는 고무줄 놀이를 친구에게 배우며 생각보다 어렵다며 배시시 웃는 12살 소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키가 작아서 과자를 따먹지 못하는 유아들을 배려해 줄을 내려주는 동네 오빠들의 표정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재치 있는 달변가로 동네에 알려진 김용자 씨가 진행한 수박먹기 게임은 수박씨를 가장 멀리 뱉은 사람에게 까만 씨와 기념 촬영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어져 주위를 푹소케 했다.

지난 2년 동안 동네 숲과 놀이터에서 진행됐던 사1동 마을영화제는 올해 처음으로 평생학습관 외부공간에서 진행됐다.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공간들이 숨어있는 평생학습관 외부공간이 이날만큼은 근사한 놀이터가 됐다. 위쪽 공터에서는 동네 형이 동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고, 계단 아래쪽에서는 개구쟁이들이 술래잡기를 하고, 계단사이에서는 여자아이들이 사방치기를 하면서 공간 구석구석을 깨알같이 이용하

고 있었다. 놀 수 있는 공간과 판만 벌여주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화상영이 시작될 쯤 안타깝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평생학습관 측의 배려로 대강당에 들어가 영화관람을 할 수 있었다. 무더위에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시원한 실내에서 돛자리를 깔고 영화를 보면서, 여름밤이 한가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개봉관이 많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볼 수 없었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란 영화를 어린 아이들이 모두 흥미롭게 관람했다. 피자배달 봉고차에 사는 소녀가 집을 사려고 개를 훔칠 계획을 세운다는 영화의 줄거리가 주민들에게 웃음과 감동뿐 아니라 특별한 공감까지 불러일으켰다.

3년째 마을영화제 봉사를 하고있는 박영민 씨는 "함께하는 주민들이 이젠 말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준비하고, 청소년들도 웬만한 어른들보다 일을 잘한다."며 여유롭게 부침개를 뒤집었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마을 숲'
사랑을 품다 10

조각 작품을 감상하며 산책하기 좋은 '성호공원' 이야기



뜨거운 여름이다. 한낮의 열기가 주춤할 시간을 기다려 이른 저녁을 먹고 성호공원을 찾았다.

상록구 이동, 성포동, 부곡동에 걸쳐있는 성호공원은 수인산업도로와 나란히 7km 길이로 펼쳐져 있다. 495,587㎡의 넓은 면적에 식물원, 성호기념관, 조각광장, 야외공연장, 분수, 단원광장이 있으며 축구장,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어 가족 단위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안산식물원 옆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메타세콰이아 길을 따라 성호공원을 소개한다.

유리온실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우뚝 선 식물원은 여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겨울에는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한다. 문이 닫힌 식물원을 지나 농수산시장 쪽으로 걸으니 야생화단지에서 아기자기한 꽃들이 나를 반긴다. 용담, 천인국, 꽃범의 꼬리, 별개미취, 백리향아 낮은 곳에서 향기를 피운다.

U자 형태로 걷다가 식물원 뒤편에서 기암괴석처럼 서 있는 규화목이라는 나무를 발견했다. 광물 성분을 흡수해 화석화되어 돌처럼 굳어진 나무에는 핏줄처럼, 주름살처럼 인공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야외무대와 분수 주변은 어린 아이와 여중생들의 차지다. 성호기념관 뒤 이익 선생이 학문을 연구했던 곳임을 알려주는 기념비 앞에서 까만 토끼가 귀를 쫑긋거리다 사라졌다. 대부도에서 발견된 1억여 년 전의 초식공룡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화석과 약 2,500년~3,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청동기 시대 남방식 지석묘 7기가 놓여있다. 공원 곳곳에도 저마다의 나이트가 존재하는 듯하다.

드디어 조각공원 초입이다. 메타세콰이아 길 사이사이로 넓은 잔디 위에는 국내 최고 중견작가의 작품과 단원미술대전의 우수한 역작들이 전시되어 있다.

인류의 초상, 애증의 땀, Man, 유토피아 2001, 도시인, 꿈결 같은 세상, 현대인 등의 조각 작품들이 푸른 잔디 위에서 관람객들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말을 건다. 그러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조각상의 시선을 외면하며 바빠 걸음을 재촉한다.

중앙광장에는 기원으로 쓰이는 쉼터가 있다. 이동식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고, 한 편에는 바둑판과 바둑돌 대여섯 세트가

보관되어 있다.

동료들과 대국이 끝난 뒤 자리를 떠나지 않고 복기를 하는 듯 혼자 백돌과 흑돌을 놓던 송만헌 씨(일동)는 “주말마다 기원에서 바둑을 두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평일에도 6~7명의 어르신들이 다녀가는 이곳은 주말이면 15명 이상이 다녀갑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며 바둑을 두다 보면 마음이 확 트이는 것 같아 활력이 됩니다.”라고 했다.

성호공원 뒤편을 지나 축구장으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수련이 있는 작은 연못이 나온다. 노란 창포꽃이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소나무와 무궁화가 어우러진 동산 옆 벤치에서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가롭다.

노적봉으로 연결되는 구름다리에서 잠시 방향을 가늠한다. 이 다리는 성포동과 부곡동 주민을 연결하는 오작교 역할을 한다. 인근 주민들은 노적봉공원과 성호공원을 넘나들며 산책과 운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윤애경 씨(55세, 성포동)는 “성포도서관 옆길에서 시작해 노적봉을 한 바퀴 걸으며

운동을 하는데 오늘은 이 다리를 지나 안산식물원까지 다녀오려고요. 작품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산책하기에 참 좋아요.”라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는다.

구름다리 옆 단원광장에는 기와이기, 씨름, 대장간, 점심, 길쌈, 서당 등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를 작품화한 22점의 부조벽화가 액자처럼 세워져 있다. 안산의 특색이 넘치는 조형물을 하나 둘 지나다보면 안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이 한 뼘씩 자란다.

공원관리소와 주차장 뒤편에는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어 인라인 스케이트나 보드를 배우는 장소로 가족 단위 시민들이 즐겨 찾는다. 여기부터 부곡동 쪽으로는 경사가 급하지 않은 내리막길이라 초보 단계를 넘어선 이후에는 스릴을 만끽하기에도 좋다.

돌아오는 길, 조명이 켜진 축구장에서 경기가 한창이다. 아스라이 땅거미가 내려앉은 공원에도 가로등이 하나둘 불을 밝히고, 공원의 하루가 간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hanmail.net>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수십 가지 재미가 숨어있는 ‘성태산’에 가다

성태산성과 안산옛길의 정취를 맛보다



166m 높이의 아담한 높이를 가진 성태산은 다양한 재미를 주는 산이다. 산 주변으로 안산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사찰 두 곳을 만날 수 있고, 삼국시대 만들어진 성태산성의 흔적도 찾을 수 있다. 성태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은 안산에서 가장 높은 산, 수암봉으로 가는 등산로와도 연결되며, 반월저수지 가는 길과도 이어진다. 8km가 넘는 트레킹 코스를 경험하고 싶다면 안산옛길을 따라 걸으며 숲과 안산의 역사를 동시에 체험할 수도 있다. 안산산재병원 출입구 쪽에 있는 도룡구룡숲 연못에서는 도룡농과 개구리 등 포유류의 일대기도 관찰해 볼 수 있다.

성태산 자락에서 만날 수 있는 두 개의 사찰은 안산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청룡사와 안산산재병원 옆에 있는 월강사다. 성태산 정상은 청룡사 왼쪽으로 나있는 오르막길을 20분 정도만 올라가면 금방 닿을 수 있다. 성태산 정상에 도착하면 평평한 땅에 역

기, 철봉, 샌드백 등 각종 운동기구가 조성된 평범한 쉼터를 볼 수 있을 뿐, 시야는 사방으로 막혀있다. 이곳은 삼국시대 축조된 것으로 확실히 되는 성태산성의 망루가 있던 곳이다. 2000년 한양대박물관 배기동 관장이 이 일대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시대에 축조된 산성이 확실히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지금도 조금만 눈여겨 둘러보면 정상부근 바닥에서 기와 조각, 토기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고, 정상부근을 둘러싼 산길을 따라 무너진 성벽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없이 지나치면 그냥 큰 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삼국시대 성벽을 쌓았던 돌의 흔적이 산 곳곳에서 발견된다. 현재 성태산 정상에서는 나무가 우거져 사방을 전혀 조망할 수 없지만, 삼국시대 신라가 중국과 교역하는 통로를 확보했을 무렵에는 해안과 내륙을 잇는 교통의 요지에 있던 성태산성이 서해를 감시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어기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동 청룡사에서 출발해 중앙병원 뒤편 점성고개를 넘어 반월동으로 이어진 아늑한 길은 걷는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는 곳이다. 차가 없던 시절 마을 사람들이 나귀를 타거나 보따리를 메고 마을과 마을을 넘나들며 나누던 삶의 소소한 기쁨들이 나지막한 옛 고갯길의 정취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 점성고개를 지나는 안산 옛길은 바람들이 농장을 지나 청문당과 정재초등학교까지 이어진다. 총 길이 8.4km의 트레킹 코스로 소요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성태산은 낮은 산이지만, 대부분 나무들의 키가 높고, 숲이 전체적으로 울창하다. 200여년 가까이 된 오래 된 느티나무도 이곳에 있다. 성태산 자락에 있는 생태연못 도룡구룡숲에서는 지금도 봄에 200마리가 넘

는 도룡농과 개구리, 올챙이 등을 관찰할 수 있다. 그만큼 성태산이 다양한 생물들이 살기 좋은 생태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일동에 사는 주민들은 성태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동주민센터에서 출발해 성태산 정상을 찍고 수암봉으로 가는 등산코스로도 이용하고, 월강사에서 출발해 청룡사로 하산하는 둘레길 코스로 편안한 산책을 즐기기도 한다. 성태산 정상에 오르면 운동기구로 간단하게 스트레칭도 할 수 있고, 물이 있는 풍경을 보고 싶으면 반월저수지 쪽으로 방향을 틀어 특별한 재미를 만끽할 수도 있다. 안산의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성태산에서 무너진 성벽의 돌들을 찾는 것처럼 숲에서 발견할 수 있는 더 색다른 재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안산시의 도시숲은 안산시민에게 맑은 하늘과 청정한 공기를, 심리적 치유와 보다 나은 삶을 선물합니다.”

자연공존의 숲 시민들이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생명의 숲	녹색가로의 숲 맑은 하늘과 청정한 공기, 자연과 도시를 연결하는 가로녹지 숲	해안휴양의 숲 섬의 다양한 생물들이 가득한 갯벌 및 해안선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해안생태 숲	치유의 숲 시민의 스트레스저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휴양의 숲	공동체의 숲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커뮤니티 도시숲
--	---	--	--	---

“도서관과 학교가 함께 청소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골도서관, ‘찾아가는 인문학’으로 53개 중고등학교 찾는다



이남석 작가가 임수연 학생의 고민에 조언을 해주고 있다.



최미현 학생이 작가의 사인을 받고 있다.

감골도서관은 평소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문학-첫번째로 만나는 인문학 상상콘서트(이하 첫인상)’과 ‘청소년 꿈그리기’ 등 도서관과 학교의 상호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인문학 첫인상’프로그램이 석호중, 성안고에 이어 7월 8일에는 중앙중을 찾았다.

이날 ‘뭘 해도 괜찮아’, ‘선택하는 힘’, ‘무식제 심리학’ 등을 저술한 이남석 작가는 ‘꿈으로 향하는 변신 3단계’에 대한 강연을 했다. 신문방송학과를 지원했다가 심리학, 인지과학으로 학과를 변경하면서 융합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남석 작가는 그 경험을 고스란히 전달해주고자 특별한 방식으로 강의를 했다.

변신 1단계는 바이크를 타고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며 공중곡예를 하는 남자와 자동

차 디자이너의 꿈을 가진 지체장애자의 영상에서 공통점 찾기. 변신 2단계는 애니메이션 속에서 주인공은 꿈을 실행했는가? 변신 3단계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 속에서 나비는 꿈을 찾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한다.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3초 안에 손을 들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들려주는 강의에 익숙한 학생들은 퀴즈 형식으로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스스로 찾게 하는 방식에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점차 적응해나갔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아이들은 변신3단계에 근접한 답을 내놓는다.

△정말로 좋아하는 것 찾기, △실행하고 행동하기,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만나려고 노력하기의 ‘꿈으로 향하는 3단계’에 이르는 동안 아이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를 마치고 아이들이 작가에게 질문

을 할 때에도 작가는 1인칭으로 질문할 것을 요구한다. 남의 인생에 대해 묻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레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저만의 디자인을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김건희 학생(2학년)에게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열심히 그들을 만나라고 조언을 한다.

“무대 위의 연극배우가 되고 싶는데 돈을 못 벌까봐 걱정”이라는 임수연 학생(3학년)에게 작가는 되묻는다. “그것이 직업인가? 꿈인가? 프로는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마음이 커야 한다. 최고의 배우, 감동을 주는 배우가 되겠다는 꿈부터 시작하라.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다른 것을 직업으로 가져도 좋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강연이 끝나자 퀴즈를 맞히거나 세 번 이상 손을 들어 책을 선물로 받은 아이들이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이남석 작가는 아이들에게 ‘가슴 떨리게 했던 한 단어’에 대해 물어보면서 사인과 함께 짧은 편지를 써주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중앙중 홍기영 교장은 “작가와 만남은 아이들을 변하게 한다.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는 동기부여는 물론 작가의 작품과 인생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지원해주어 감사하다.”고 했으며, 감골도서관 이미영 계장은 “청소년들이 도서관에서 책 읽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 바란다. 학교와의 상호협력 사업으로 도서관이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골도서관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 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인문학 첫인상’은 문학, 사회, 역사,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을 학교로 초청한다. ‘청소년 꿈그리기’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중학교가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서관 100배 즐기기, 사서직업체험, 창의공작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소년 꿈그리기’와 ‘첫인상’ 강연을 희망하는 학교는 감골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감골도서관 ☎ 031-481-3704, 3706

신선영 명예기자(woghkah@hanmail.net)

관산도서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해



벽화그리기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모습

다문화아동 대상, 벽화에 그리는 꿈

지난 6월 27일 토요일 관산도서관 뒷마당에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특수 물감과 하얀 패널이 마련되어 있었다. 하얀 패널을 채우기 위해 모인 아이들은 다문화가정 자녀 35명이다.

안산시다문화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아이들은 두 번의 사전 교육을 통해 서로 친해지는 시간도 갖고 무엇을 그릴지, 어떻게 그릴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35명의 아이들은 3개조로 나뉘서 패널을 가운데 놓고 빙 둘러앉아 각자 한 부분씩 맡

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꽃을 그리는 아이, 소망을 적는 아이, 바탕색을 정성껏 칠하는 아이 등 생김새만큼이나 다른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여념이 없다.

이날 완성된 이동식 벽화는 관산도서관 내부에 상설 전시를 할 예정이며,

11월초에 대부도도서관 개관식에도 전시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관산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2015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에 선정돼 진행하는 것으로 다문화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에는 이점숙 독서치료강사가 진행하는 독서치료를, 6월에는 도시환경연구소가 진행하는 다문화벽화그리기를, 7월에는 다문화잔치를 할 계획이다.

오는 7월에 예정된 도서관잔치에서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다문화스토리텔링과 세계문화체험놀이, 세계시스템프체험을 할 계획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학생, 도서관 많은 안산이 부러워요

지난 6월 30일 화요일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학생 15명이 관산도서관 한옥어린이자료실을 찾았다. 이 학생들은 수도 케이프타운에서 1시간여 거리에 위치에 모뉴먼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5%이내의 성적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로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의 한국방문이다. 전복희 관장이 인사말을 통해 안산시에는 크고 작은 도서관 27개소가 있다고 소개하자 학생들은 부러움 섞인 탄성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프로그램

은 캘리그래피 체험. 좋아하는 글귀를 자유롭게 표현하라는 캘리그래피 강사의 설명과 주어진 샘플을 본 학생들은 바탕을 장식할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영문이름을 한글로 쓰기도 했다.

부채에 ‘사랑해요’라고

한글로 쓴 니카타 군(19세)은 “남아공에는 부채가 없는데 가지고 가서 잘 사용하겠다. 어디서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한국 사람들이 인상 깊었고,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난 한국의 에너지가 놀랐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인솔한 이성규 선교사는 “한국을 방문한 후 돌아간 학생들이 남아공에서 한국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모습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메르스로 힘든 시기임에도 학생들의 방문을 허락해 준 관산도서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은미 명예기자(kiami34@hanmail.net)



부채에 캘리그래피 체험을 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학생들

“상처받은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독서치료동아리, ‘마들자리’



독서치료 동아리 '마들자리' 회원들

지난 2013년 감골도서관 독서심리양과정을 마친 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독서를 통한 마음치유를 위해 꾸준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마들자리는 그 범위를 확대해 현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물론 장애아를 둔 부모님, 임신부를 대

상으로 한 독서치료를 하고 있다.

‘마들자리’란 무슨 뜻일까? 김윤정 회장은 “마음을 들어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소통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서툴게 표현하고 상처받은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매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다보면 어느새 거리

가 좁혀짐을 느낀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은 지나치게 어른에게 밀착하는 아이와 지나치게 경계심을 갖는 아이로 나눌 수 있다. 어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순응하고 눈치를 보는 아이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나친 경계심을 갖고 대하는 아이들에게는 관심을 표현하고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반응해 주면서 아이들을 감싸준다. 돕겠다고 무턱대고 다가가면 아이들은 이내 경계심으로 움츠러들지만 그림책으로 다가가면 의외로 쉽게 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것이 그림책이 갖는 힘이다.

올해 시작한 장애아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이라고 한다. 성인이 된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의 내공은 감히 능가할 수 없는 수준이라 감사와 학습자가 아닌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고 있다.

안산시 내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지역아동센터와 마을문고, 홈스쿨 15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마들자리’ 회원들은 매주 1회 꾸준히 스터디 활동을 하며 역량을 강화하

고 있다.

‘2013년 안산시자원봉사대회 우수상’, ‘2014년 감골도서관 하루 10분 독서운동 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한 ‘마들자리’는 수업계획안을 묶어 자료집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감정과 연계한 수업계획안을 만들어 자료집을 만들어 필요로 하는 곳에 배부해 공유할 계획이다.

김윤정 회장은 “책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다보면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제약에서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독립된 자아를 갖게 되면 가깝게는 가족, 멀게는 이웃과 얽매임 없는 폭넓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서치료 1급을 수료한 21명의 회원들은 소외된 아이들은 물론, 어르신, 병원, 공공육 현장에서 그림책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자신을 담금질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모인 ‘마들자리’의 초심을 대변해 주고 있다.

김은미 명예기자 (jami34@hanmail.net)

월드 파플 다문화 속으로



박하늘 씨(28세)는 2007년 5월에 남편 김용섭 씨(48세)와 결혼을 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결혼이주여성이다.

어머니는 네 살 때, 아버지는 14살 때 돌아가셨다. 그 후 이모가 부모님의 빈자리를 대신해 하늘 씨 삼남매를 맡았다. 이모는 하늘 씨와 동생들을 친자식처럼 학교에 보내주고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성장하도록 키워주셨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모에게 의지하며 살 수는 없었다. 열여덟 살이 되었을 때 이모는 하늘 씨에게 베트남에서 사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행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고 한다.

하늘 씨의 고향 퀴터는 베트남 남부에 있는 시골 마을이다. 베트남인들은 스스로 근면, 성실, 인내, 친절, 용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며 외세에 굴복하지 않은 역사를 지닌 나라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대체로 북부 지역 출신 사람들은 근면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남부 출신 사람들은 풍부한 농산물 등 자연 조건의 영향으로 개방적이고 낙천적이다.

하늘 씨는 남부 지방의 남자들이 추진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한다. 여성들의 사회

베트남에서 온 박하늘 씨의 안산살이 “마당을 나온 암탉 ‘잎싹’처럼 꿈을 꾸니다”

활동이 매우 활발해 공산당과 정부, 단체 등의 요직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하면 자녀양육권이 생활력 강한 여성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베트남의 이런 생활방식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외국 남자에 대한 호감이 높아 여성의 국제결혼 비율이 높다고 한다. 하늘 씨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언어였다.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을 통해 3개월 동안 다문화지도사가 그림책을 가지고 한글을 가르쳐주었다고 했다. 이후 복지관, 외국인주민센터의 한국어 교육을 받으며 자국에서 온 여성들과 교류하며 한국에 정착했다.

결혼 초기,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남편의 권위식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남편의 말에 자신은 ‘하늘’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결혼이주여성은 입국 2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1년 뒤 한국국적이 나오자마자 그녀는 베트남 이름 ‘팜 타를러이’ 대신에 시어머니의 성을 붙여 ‘박하늘’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어 불렀다.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의 주인공 잎싹처럼...

하늘 씨는 한국음식이 입에 잘 맞았다. 특히 해장국을 좋아한다. 아들 삼형제 현(8세), 동준(6세), 재호(5세)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공부도 제법 잘 한다고 한다.

“한국은 베트남보다 깨끗하고 살기 좋아요. 남편도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이라서가 아니라 부부는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라며 “한국 부모들이 교육열이 높아서 우리도 교육비가 많이 들어 열심히 돈 벌고 있다.”고 했다.

한국 생활이 익숙해진 요즘 하늘 씨는 자신의 꿈을 위해 작은 목표를 세웠다. “베트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으로 온 친구가 남편과 이혼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갔는데, 그 친구처럼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다면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싶어요.”라며 밝게 웃는다.

스스로 이름을 지어 부르고, 양계장을 뛰쳐나와 새끼를 키우는 꿈을 꾸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던 난용종 암탉 잎싹을 닮았다. 그녀가 씩씩하게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파이팅을 해주었다. 돌아서는 그녀의 발걸음이 가볍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전 세계 23개
유명 미술관 소장의 명화를
아이들의 눈으로
새롭게 만나는

세계명화 여행전

- 전 시 명: 모니카와 떠나는 세계명화 여행전
- 전시기간: 2015. 4. 7 ~ 8. 23
- 전시장소: 경기도미술관
- 전시내용: 브라질의 월트 디즈니로 불리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거장 '마우리스우 지 소우자' 작가가 어린이들의 문화 함양을 위해 자신의 인기 캐릭터로 그린 명화 전시

전국 축구팬들 안산 와~스타디움 주목!

7월 17일, '2015 K리그 올스타전' 열려



안산 와~스타디움에 전국 축구팬들의 이목이 쏠렸다. 지난 7월 17일 오후 7시 한국 축구계의 별들이 펼치는 '2015 K리그 올스타전'이 열린 것이다. 울리 슈틸리케(61세·독일)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과 전북 현대 최강희(56세) 감독은(지난해 K리그 우승, 올 시즌 현재 성적 1위) K리그 최고 스타 선수들을 이끌고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2만 5천여 관중을 포함해 전국의 축구 팬들

에게 재미난 경기를 보이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올스타전 선수단은 K리그 1부 12개 구단 감독과 주장이 뽑은 부문별 베스트 11명의 선수와 올스타 팬들의 투표 결과 뽑힌 선수로 구성됐다. 이렇게 선발된 22명의 선수 중에서 슈틸리케와 최강희 감독은 원하는 선수를 지목해 팀을 꾸렸다. 팀 슈틸리케는 염기훈(수원) 선수를 주장으로, 김신욱

(울산 현대) 선수 등이 주축을 이뤘고, 팀 최강희는 차두리(FC서울) 선수와 이동국(전북 현대), 거미손 김병지 선수 등으로 구성됐다. K리그 감독들은 경기 주심과 양팀 코치를 맡아 경기에 재미를 더했다. 김도훈 인천 감독과 윤정환 울산 감독이 주심으로 변신했고 황선홍(포항), 노상래(전남), 신태용(올림픽대표팀) 감독은 '팀 슈틸리케' 코치로, 서정원(수원), 김학범(성남), 최용수(서

울) 감독은 '팀 최강희'의 코치를 맡았다.

올스타전은 뛰는 선수도 보는 관중도 즐거운 하나의 축제다. 경기 초반부터 시원한 슈팅이 팡팡 터졌다. 전반 4분 상대 진영 페널티박스에서 왼발 슈트로 첫 슈팅을 날린 '팀 슈틸리케'의 염기훈은 전반 10분 기습적인 왼발 슈트로 골 망을 흔들며 첫 골을 기록했다. 팀 최강희의 레오나르도(전북 현대) 선수도 전반 27분 오른발 슈트를 날려 동점을 만들었다. 선수들은 골을 넣은 후 다양한 골 세리머니로 관중들을 즐겁게 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염기훈 선수가 첫 골을 기록한 후 골프 스윙 세리머니를 보여줬다. 인기 걸 그룹 AOA는 전반 20분이 끝나고 '쿨링타임'에 축하공연을 펼쳤다. 하프타임에는 양팀 선수들의 릴레이 레이스가 펼쳐졌다. 경기는 양팀이 3골씩 사이좋게 주고받으며 3대3 무승부로 끝났다. 2015 K리그 올스타 최고선수에는 선제골과 1도움을 기록한 염기훈 선수가 선정됐다.

이날 와~스타디움에는 K리그 2부에 속하는 '안산경찰청프로축구단' 소속 선수들은 아쉽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올 시즌 좋은 성적으로 1부 리그 승격을 이뤄 안산의 프로축구단 소속 선수들도 다음 올스타전에서는 전국의 팬들에게 뽐히는 영광을 누리보길 기대해 본다.

안산시 행복예절관 다도지도사들은 손수 만든 양갱과 오미자 화채, 연꽃잎차로 안산 와~스타디움을 찾은 초대 손님들을 대접했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택 의원은 안산 원곡중 축구부에서 선수로 뛰었을 정도로 축구에 소질이 있다. 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축구선수의 꿈은 접었지만 축구를 향한 애정까지 버리지는 못했다. 28살부터 안산시 축구협회에서 활동하면서 사무국장, 전무이사, 협회장까지 역임했는데 안산시 6대 의회 시의원으로서 당선되면서 겸직이 불가능한 협회장자리를 내놓았을 정도로 축구와의 인연이 깊다. 그는 6대 의회 친선경기에서 발목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기 전까지 조기축구회 회원으로 활동도 했다. 지금은 배드민턴이나 어머니배구단에서 가볍게 배구를 즐긴다.

지난 16일 '안산경찰청프로축구단'에 대해 문화복지위원장으로 그의 생각을 듣기위해 시의회 의원실을 방문했다. 그는 경찰청축구단이 "시민 곁으로 더 파고들어 시민의 공감을 얻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구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안산시가 벤치마킹 차 다녀왔던 일본 J리그 반포레 고후 팀이 J리그 최하위 성적이지만 지역 밀착형 마케팅을 펼치며, 인구 19만의 소도시 지역주민과 경제인들의 지지

를 이끌어내 14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룬 예를 들었다. 그는 경찰청축구단이 안산의 프로구단으로서의 한계도 분명 있지만 스마트허브 근로자와 200여 개의 축구동호회, 100여 개의 축구 클럽, 어린이 축구교실 30여 개 등 축구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안산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일요일 학교 운동장과 축구장은 동호인들로 빈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사무국 홍보팀은 적극적으로 동호회에 다가가 홍보활동을 펼쳐 단체 관람 안내 등 축구인들이 홈경기만이라도 보러 오도록 필요하다면 홈경기 일정표를 동호인들에게 직접 전할 필요가 있고, 또 경찰청 축구

단 선수들은 일일 감독이나 코치로 뛰면서 조기 축구회 동호인들을 가깝게 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안산 스마트 허브에는 재정적으로 지원이 될 9천여 개의 기업체가 존재한다. 이 모든 요소들을 융합해 안산시가 축구도시로 성장한다면 이 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줄이며 경찰청 축구단 이후 시민 구단을 운영할 저력도 생기게 될 것이다.

경찰청 축구단 운영에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홍보, 원정경기 비용 등 연간 25억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프로축구연맹 지원금 5억 원과 시 출연금 5억 원, 후원사의 후원금 등을 합하면 15억 원 정도는 마련되

지만 나머지는 광고와 관중 입장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인기 있는 TV드라마에 광고 스폰이 줄을 잇는 것처럼 스포츠 경기도 관중석에 손님이 찰 때 광고도 붙는다. 경찰청 축구단은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유소년 팀을 육성해 우수한 청소년이 입단하는 명품 시민구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안산경찰청축구단 운영 노하우, 시민구단 밑거름 되길 기대”

안산시의회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의 축구이야기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21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현장활동



민방위교육장 재난체험장에서 소화기 사용 체험을 하고 있는 위원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8일 제 221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안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이뤄졌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재난체험장과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민방위교육장 재난체험장에서 위원들은 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기 위해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 교육, 지진 및 강풍 체험을 실시한 뒤 시설을 둘러보며 개선점을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재난체험장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려면 안전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위원들도 안전 관련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실시되는 것이 효과가 있다면서 공감을 표했다.

이어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한 위원들은 현재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안산시청소년 직업체험센터의 공사 진척상황을 현장 관계자로부터 보고 받고, 성실 시공과 방음 문제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으며, 청소년 진로상담 강화와 안산교육지원청 및 지역 학교들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아울러 수련관 청사 내 있는 안산대덕 청소년 과학관의 홍보 강화와 수련관 앞마당을 주차장이나 청소년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2일부터 안전 심사를 진행해 왔고, 이날 의결을 앞두고 현장에서 의결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한 것”이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상임위 차원에서 현장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21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현장활동



초지동에 위치한 도시락 업체를 찾아 도시락 조리 과정과 주방 위생 상태를 둘러보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당부했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제221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7일 오후, 첫 현장활동 대상자인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서는 세월호 사고 등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인 센터의 조직 상황과 활동 실적, 올해 주요 사업 등을 살피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복위 위원들은 센터 측에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세월호 사고 피해 가족이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센터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 모두를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을 방문해서는 오는 11일 개장을 앞둔 시점에서 부대시설 상태와 수질 등을 점검한 뒤, 운영을 맡은 안산도시공사 측에 응급 상황 발생 시 환자 이송

체계를 확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초지동에 위치한 도시락 업체(주)이 푸른푸드를 찾은 위원들은 도시락 조리 과정과 주방 위생 상태를 둘러보며 아동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문화세상고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다문화 체험 교실 운영 등 업체의 사업 내용을 공유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기업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은 “회기 중 실시되는 현장 활동을 내실있게 진행하려고 상임위 위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며 “이날 방문한 4곳은 심사 기간 동안 정점이 됐거나 이해가 필요했던 곳으로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안전 심의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안산시의회

“시민 참여를 더 높일 수 있는 정책 필요해”

생명·공정·생태·경제도시 4개 주제로 시민과 원탁토론회 열려



안산시가 생명, 공정, 생태, 경제도시 4개의 섹션별로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안산, 리질리언스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주민참여기회 확대 극대화 방안’, ‘숲의 도시, 15년 후 도시의 경쟁력이다’, ‘성장의 열쇠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4개 주제별로 관심 있는 전문가와 시민을 30명씩 배정해, 80여 분간 다채로운

토론이 이뤄졌다.

생태도시 섹션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성현 박사는 “앞으로 15년 동안 ‘숲의 도시’ 정책이 지속될 수 있으려면 시민이 원하는 정책이어야 가능하다.”며 “숲의 도시가 시민 입장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어떻게 참여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인지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에버그린21의 고관 실장은 “‘숲의 도시’를 단순히 나무를 많이 식재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숲과 같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더 넓게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숲이 갖는 여러 공익적 기능, 즉 습과 여가, 건강과 생물다양성, 공동체 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에 정책과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나무 식재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도시 분야에서 안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장동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지와 다가구밀집지간에 주민의견 수렴 기회의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의 행정 참여와 의사결정의 측면에서 지역 간 편차가 크기 않도록 다세대다가구 지역에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성웅 사1동 주민자치위원은 “공정한 행정이란 이미지를 시민이 갖게 되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요구된다.”며 “안산시가 세세한 여러 행정 정보들을 시민, 연구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이

용을 지원해, 시민과 행정 간에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제도시 분야에서 강소영 안산새사회연대일자 사무국장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회 초년생이 창업으로 성공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실질적인 인턴시스템을 통해 직간접적인 사회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고, 마을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섹션에서 이뤄진 토론결과는 테이블 별로 정리한 후 바로 공개됐다. 토론을 끝까지 경청한 안산시관계자는 “앞으로 청년과 기업인이 5:5로 섞여서 함께 토론해 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만여 개의 기업이 가진 만여 개의 노하우를 저장 공간에 만들어놓고 청년들이 골라서 창업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장치들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에는 각자가 꿈꾸는 도시의 미래에 대한 염원과 의견들을 무대 위 안산시 비전 ‘숲의 도시’에 붙이는 퍼포먼스도 진행해, 시의 각종 정책과 시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송보림 명예기자(treehelper@naver.com)

사진으로 보는 안산

Photo in An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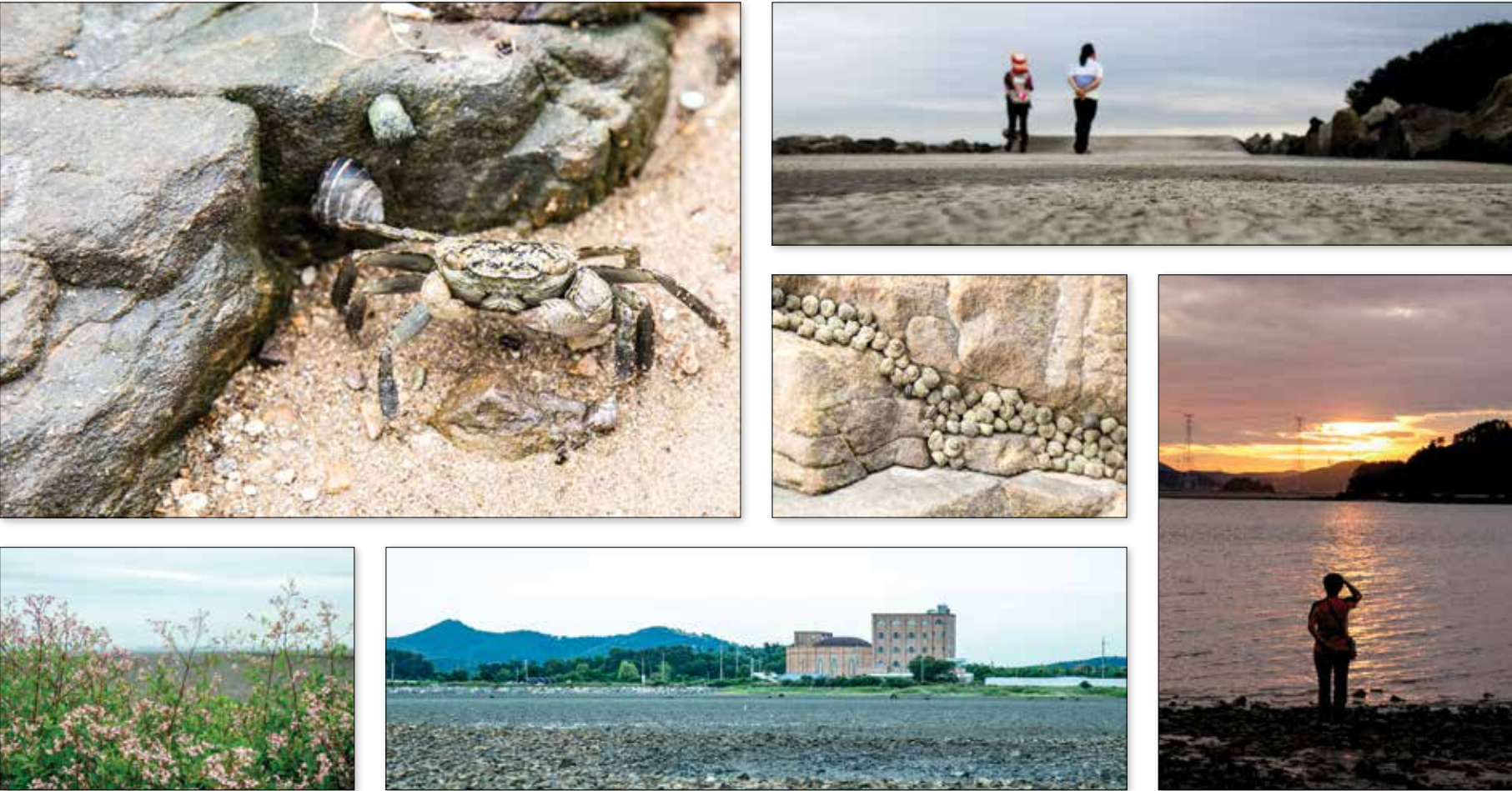


대부해솔길 ‘할미섬’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와~스타디움 ‘K리그 올스타전’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대부도 ‘할미섬’ • 위치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 한줄 정보 한때 염전으로 대부도와 연결되었으나, 염전이 철거되며 다시 섬이 되었다. 주변에 승마장과 캠핑장이 관광지로 인기가 있다.



와~스타디움 • 위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 한줄 정보 2006년 11월 완공했으며, 천연잔디축구장과 육상경기장을 갖춘 종합운동장. 3만 5,000석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

안전한 사회만들기

시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하며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재난사고를 예방, 사건사고를 경계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만화를 게재한다.

자료제공 :  **국민안전처**

숨막히는 여름

치사율 50%, 열사병의 전조증상



SOS

체너퀸 수호대

왕박사의 한마디

일사병이란?

일사병과 열사병은 증상도 응급처치도 다릅니다. 일사병은 강한 햇빛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체내의 수분이 과도하게 손실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먼저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체온을 낮추고, 편안하게 눕힌 후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마시게 합니다.

어지럼증, 두통, 발열, 구토, 근육경련, 실신

사람이 쓰러졌어!

어서 시원한 그늘로 옮겨야 해.

바껴야 바껴야

여기요!

다들 햇볕에 너무 오래 노출되었습니다. 좀 쉬는 게 좋겠어요.

젖은 수건 갖고 계신 분.

강박수,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해줘.

여기 이온음료 있어요!

아뇨! 이럴 땐 음료수보다 정맥 주사를 통한 수액 보충이 필요해요.

젖은 수건이나 찬물로 체온을 빨리 낮춰야 해.

토크러나 봐.

안녕 자기?

자게! 일어나!

어머나! 이 땀 좀 봐. 약물 끈 거야?

그나저나 왕박사는 국토대장정 잘 갔나 몰라.

아무래도 꿈이 불길해...

나 부탁 하나만. 뭔데? 자기 부탁이라면...

자게! 일어나!

어머나! 이 땀 좀 봐. 약물 끈 거야?

그나저나 왕박사는 국토대장정 잘 갔나 몰라.

아무래도 꿈이 불길해...

나 부탁 하나만. 뭔데? 자기 부탁이라면...

왕박사는 국토대장정 중

나 박사한테 데려다줄래?

아반강카 뭘시기로...

이리 줘. 몸도 약한 애가 여긴 왜 온 거야?

똥로통-

뭐지? 이 불길한 느낌은?

똥로통-

똥로통-

똥로통-

백수 씨!

열사병은 치사율이 50%에 이를 만큼 무서운 질환입니다. 유럽에서는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 해에만 무려 7만 명에 이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1990년대에 비해 무려 23배나 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날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 일사병 걸린 거 맞지?

아니. 열사병.

일사병하고 열사병이 달라.

당연하지. 일사병이야 쉽게 회복되지만 열사병으로는 죽을 수도 있다고.

왕박사의 한마디

열사병이란?

열사병은 장시간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거나 지나치게 더운 장소에서 오랫동안 있는 경우 시상하부의 체온조절기능에 문제가 생겨 열이 제대로 발산되지 못하는 질환으로, 자칫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얼음물에 환자를 담그거나, 냉수를 이용해 장기를 세척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심부체온을 낮춥니다.

체온 40℃ 이상

발작, 의식손실, 경련, 무한증

왕박사의 한마디

폭염, 예방이 중요합니다

1. 물을 많이 마십니다. 커피, 녹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나 맥주 등은 이뇨작용을 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2. 낮 12시부터 4시까지는 냉방이 가능한 곳에서 2시간 정도 머무는 게 좋습니다. 냉방이 안 되는 실내는 햇빛을 차단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시킵니다.
3.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문의하세요. 그리고 더운 날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혼자 두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한 덕분에 모두 무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 그것도 한낮에 너무 무리했어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왕박사!

어떡해!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냐? 구조대는 언제 오는 거야?

알았어. 순간 이동 카드를 써야겠어.

난 9명을 구했지롱. 지금 그게 중요해?

무.무슨 소리야?

뭐야, 이 사람 진심으로 걱정하잖아.

열은 내게 언제 내리는 거야고!

상록/단원어린이도서관 8월 주말 영화상영

“가족과 함께 영화 관람으로 즐겁고 유익한 주말 오후시간 보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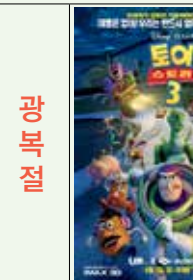
〈상록어린이도서관 주말영화상영 프로그램〉

		관 복 절		
8월 1일(토)	8월 8일(토)	8/15	8월 22일(토)	8월 29일(토)

안산시 감골도서관(상록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즐겁고 유익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상록어린이도서관 지하 어울림방**에서 어린이들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감골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문화행사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연중 매달 주말 영화상영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어린이도서관(☎481-3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어린이도서관 주말영화상영 프로그램〉

		관 복 절		
8월 1일(토)	8월 8일(토)	8/15	8월 22일(토)	8월 29일(토)

안산시 관산도서관(단원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즐겁고 유익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단원어린이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어린이들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관산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문화행사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연중 매달 주말 영화상영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원어린이도서관(☎481-38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가 2015년 8월 1일부터 바뀝니다.

6자리 → 5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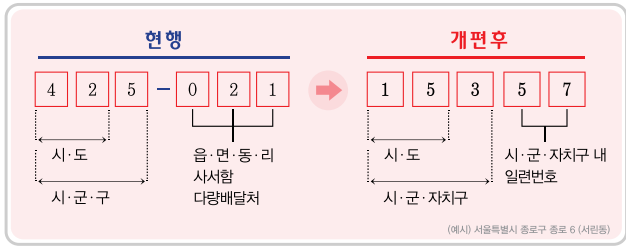
4 2 5 - 0 2 1 → 1 5 3 5 7

● 우편번호가 바뀌는 이유는?

도로명주소 시행(14.1.1.)과 더불어 국가기초구역제도가 도입되어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합니다.

● 새 우편번호로 바뀌는 내용은?

앞 3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을 의미하며, 뒤 2자리는 해당 시·군·자치구 내에서 순차적으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 새 우편번호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집배원의 배달경로 최적화로 우편물이 신속·정확하게 배달되어 우편서비스가 개선되며, 모든 공공기관이 동일한 구역번호 사용으로 위치 찾기가 쉬워집니다.

● 새 우편번호는 어디서 쉽게 검색할 수 있나요?

전국 우체국 홈페이지 및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
네이버(Naver), 다음(Daum) 등 주요 포털사이트

안산우체국

신용회복위원회
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신용회복위원회
직원모델 서동백, 최다은

신용은 Up
채무는 Down

빚 독촉을 받고 계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으십시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해드리는 공익적 법인입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서류작성 대행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를 주의하십시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안내

수도권: 서울중앙, 영등포, 동서울, 노원, 인천, 경기도(수원), 안산, 의정부, 고양, 성남 강원권: 강릉, 원주 충청권: 대전, 청주, 천안 전라권: 광주, 전주, 순천 경상권: 부산, 서부산, 대구, 마산, 울산, 포항 제주권: 제주

상담대표전화
1600-5500
평일 9:00~21:00 / 토요일 9:00~17:00

